

# 박물관사람들

2017년 겨울 · 60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문소지도 부분, 규장각

발행일 2017년 12월 5일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전화 (02)2077-9790~3  
 발행·기획 신병찬 편집회원 강현자·계윤애·길문숙·문정원·서유미·정은정 진행 서승연 디자인 문화공감 (02)2266-1897  
 전자우편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www.fnmk.org

회지에 글을 쓰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사람들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 2017년 겨울 ■ 60호 Contents

|           |                         |    |
|-----------|-------------------------|----|
| 기획/의성     | 지도에 길을 묻다               | 4  |
|           | 조문국을 아시나요               | 8  |
|           | 돌탑의 시간을 만지작거리다          | 11 |
| 문화칼럼      | 정조의 과학 수사와 『무원록』 사랑     | 15 |
| 전시실 산책    |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예술을 향한 욕망    | 19 |
| 회원마당      | 장한종의 어해도                | 22 |
|           | 물고기, 고기, 물고기            | 24 |
|           | 누드 유감                   | 27 |
| 박물관회 소식   | 2018년 42기 특설강좌 회원모집     | 31 |
|           | 제14대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신성수 선임 | 32 |
| 숨은 전시     | 춤                       | 33 |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 34 |

# 지도에 길을 묻다

타임머신을 타고 1870년대 의성에 왔습니다. 사방을 두리번거리 보지만, 모든 것이 낯선 곳입니다. 자, 어디로 가야 하나. 여기 지도가 있네요. 문소 지도聞韶地圖라고 쓰여 있습니다. 1872년에 제작한 지도입니다. 문소는 통일 신라 시대의 지명이라고 합니다. 지리지에는 ‘원래 이 지역에 조문국菴文國이 있었는데, 신라가 이곳을 점령하여 문소군聞韶郡이 되었다가 고려 태조 때 의성부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소지도의 윗부분에는 도로와 방명坊名, 산천, 교량 등의 내용이, 아랫 부분에는 봉수와 제언堤堰, 고적古蹟 등의 내용이, 중간 부분은 문소군 지도가 매우 상세하게 그려져 있네요. 19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 문소지도의 중심에 있습니다. 길은 언제나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읍내 중앙에 우뚝 솟아 있는 쪽빛 지붕의 문소루가 눈에 들어옵니다. 문소루로 가보겠습니다. 문소루는 팔작 기와지붕에 2층 누각 건물로 객사와 동헌 사이에 있습니다. 이곳은 관리들의 향연 장소로 또는 관청의 회의실로 사용됩니다. 문소루는 훗날 1983년에 복원되어 의성읍의 서쪽 구봉산 언덕 위에 자리합니다. 이후에 객사 자리에는 의성초등학교가 들어서고, 동헌 자리에는 의성군청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오늘 의식이 행해지고 있는 객사로 가보겠습니다. 관리들이 의복을 갖추고 망궐례望闕禮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망궐례란 지방에서 궁궐을 바라보고 행하는 예로, 왕의 상징인 전패殿牌를 모신 객사에서 행해집니다. 객사의 중앙에는 전패가 모셔져 있고, 관리들이 마당에서 예를 올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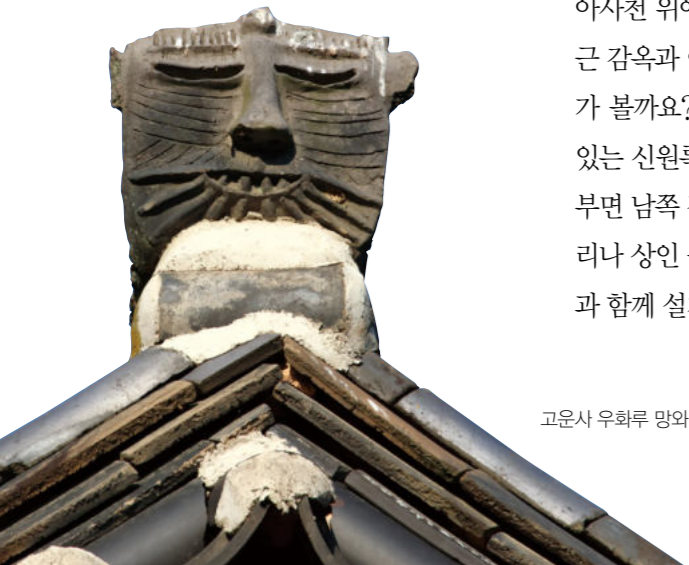
문소루를 지나 오른쪽으로 돌면 문소관이 있고, 그 앞쪽으로 대원군이 쇄국정책을 펼 때 세운 양이척화비가 있군요. 객사를 지나 남쪽 누각을 통해 마을로 나가봅니다. 동선이 빨간 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사천 위에 놓여 있는 홍교를 건너면, 남쪽으로 남부면이 펼쳐집니다. 둥근 감옥과 여러 인물의 거사비去思碑가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 볼까요? 의성 향교 명륜당과 뒤쪽으로 대성전, 그리고 비봉산 기슭에 있는 신원록 효자각도 보입니다. 유교의 흔적이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남부면 남쪽 장천 옆에 자리한 남원南院에서 잠시 쉬었다 갈까요? 원院은 관리나 상인 등 여행자에게 숙식 편의를 제공하던 공공 여관입니다. 흔히 역과 함께 설치된다고 합니다.

고운사 우회루 망와



문소지도, 규장각





고운사 가운데루



고운사 가운데루 내부

다시 남원 앞의 장천대교를 건너서 구룡제를 넘으면 조문면입니다. 이곳은 삼한시대의 부족국가인 조문국의 도읍지였다고 합니다. 조문국의 경덕왕릉이 흰하게 터를 보존하고 누워 있습니다. 조문국 고분과 산운면(현 금성면)에 있는 탐리리 오층석탑은 나라의 중요한 보물이므로 훗날 특별한 시간에 만나기 위해 남겨 두도록 하였습니다.

석탑 주변에 장이 열렸습니다. 오늘이 육일시六日市 장날인가 봅니다. 지방 장시는 아주 중요한 교역로의 역할을 합니다. 명주, 모시, 삼베, 무명, 종이, 어물도 있네요. 보부상도 눈에 띕니다. 제일 변화한 곳이 마늘 파는 장입니다. 의성 마늘은 조선 중종 때부터 의성을 성암마을에서 재배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리지에 기술되어 있을 정도로 의성은 마늘 특산지로 유명합니다. 마늘통이 자그마하면서도 통통하고 실해 보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마을 곳곳마다 사창을 두어 빈민을 구호하는 데 힘쓰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밭길을 옮겨 문소지도의 동북쪽에 위치한 점곡면 사촌마을로 갑니다. 이 마을에는 정승 세 명이 나온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정승을 낳으려면 반드시 마을 우물의 황톳물을 마셔야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마을에 사는 열네 살 나이의

한 여인이 그 황톳물을 세 바가지나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동으로 출가한 후에 임신 사실을 숨기고 친정집인 사촌마을에 옵니다. 이 마을에서는 자기 성씨를 가진 정승이 나와야 했기 때문에 외부인의 출산을 금하였던 터라, 이 여인은 자신이 타고 온 가마에서 몰래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바로 선조 때의 정승 유성룡입니다. 정승이 나온다는 전설 때문인지 이 마을은 온통 기와집으로 들어차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있는 만취당은 퇴계 이황의 제자 김사원이 학문을 닦고 후진양성을 위해 세운 가옥입니다. 만취당 현판은 천하명필가인 한석봉이 썼다고 합니다. 천장에는 유성룡 어머니가 타고 온 가마가 걸려 있습니다.

사촌마을을 지나 고운사로 접어들습니다. 고운사 들어가는 1km 정도의 길은 마치 무릉도원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합니다. 아름다운 숲길에 취해 걷다 보면 천년 고찰 고운사 일주문이 반갑게 품을 내어 줍니다. 천왕문을 지나면 양증맞게 비껴 앉아 있는 전각이 시선을 끕니다. 고불전입니다. T자형 건물에 밭길을 들입니다. 안에는 통일 신라 시대 약사불 좌상이 모셔져 있네요. 고운사高雲寺는 신라 시대 의상 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합니다. 고운孤雲 최치원이 거쳐간 뒤부터 그의 호를 따서 고운사孤雲寺로 불리고 있습니다.

누각 앞에서 밭길이 멎습니다. 신분제의 벽에 부딪혀 세상을 방랑하던 최치원이 고운사에 은거하면서 지었다는 가운데루입니다. 바닥층에 누하주를 세우고 우물마루를 깔아 누상주를 설치한 팔작지붕의 중층 누각입니다. 계곡에 걸터앉아 있듯이 놓여 있는 가운데루는 제각각 다른 모양의 기둥들이 모여 계곡을 가로질러 이쪽과 저쪽을 이어 놓고 있습니다. 다름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누각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만물이 다 다르지만 우주는 하나라는 자연의 이치를 던져주는 듯 보입니다. 계곡으로부터 두 량의 들보를 받치고 있는 누하주의 모습이 어쩐지 최치원이 고뇌한 당대 사회적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양여단이 판문을 통해 누각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전면 중앙 3칸에 쌍여단이 판창문을 달아 자연과 소통을 하고 있네요. 후면은 전체가 탁 트인 채로, 꽃과 나무를 병풍 삼아 햇살과 바람, 하늘이 들어와 쉬도록 하였습니다. 게다가 계사각 모양의 난간이 운치를 더해 줍니다. 우물마루에 햇살이 들어와 누워 있습니다. 따사로워 보입니다.

신라 말기에 최치원이 다녀가고 시대가 바뀐 뒤, 두 번의 내란을 겪은 고려 공민왕은 노국공주가 죽자 실의에 빠져 전국을 유람하다가 이곳에 들러 ‘駕雲樓’ 현판을 씁니다. 이 현판은 누각의 바깥 처마에 걸려 있습니다. 배흘림 모양의 두리기둥에 몸을 기대어 봅니다. 고요히 전해지는 역사의 흔적들, 소통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루 구석구석의 아름다운 구조에 넋을 잃어 봅니다. 잠시 기대었을 뿐인데 따뜻함이 전해집니다.

가운루와의 짧은 소통을 뒤로하고, 최치원이 머물면서 가운데루와 함께 지었다는 우화루도 지나갑니다. 잠깐, 가운데루를 살짝 비껴 앉은 우화루 앞을 지나다가 우화루에 걸려 있는 ‘孤雲寺’ 현판을 그냥 지나칠 수 없지요. 열일곱에 요절한 구한말 천재 서예가 이수철(이중해의 아명)이 열 살 때



고운사 연수전과 벽화

썼다고 합니다. 그 나이에 썼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필체에 힘이 넘쳐 보입니다. 지붕에 솟아 있는 우화루 망와도 올려다 봅니다.

영조가 왕실의 계보를 적은 어첩을 봉안하기 위해 건립하였다는 연수전으로 가 봅니다. 좌우와 뒷면 나무 벽에 왕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그림과 글이 있습니다. 단청 장인이 흥에 겨워 작업을 한다는 내용의 글귀가 무색하리만큼 벽화는 색이 바랜 채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무게가 느껴져 은은한 깊이로 다가오네요.

마지막으로 명부전으로 향합니다. 명부전에는 저승시왕이 모셔져 있습니다.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이, ‘이승에서 고운사 명부전에 다녀왔느냐.’고 물으면, 씩씩하게 대답하기 위해 고운사 명부전에도 발자국을 찍습니다. 🐾

강현자 회원

# 조문국을 아시나요

의성은 '미늘의 고장'이란 것 외엔 달리 떠오르는 게 없었는데 조문국(召文國)이란 생소한 이름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막연하면서도 원초적인 신비함에 이끌려 아득한 의성의 먼 옛날로 향한다. 의성은 지금, 지난 시간의 흔적을 더듬으며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그 중심점에 조문국이 있다.

의성 일대엔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까지 의성에서 구석기 시대는 고사하고 신석기 시대의 유적도 발견된 적이 없어 그 시기를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낙동강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안평면의 기도리와 곳곳의 구릉지에서 펜석기로 추정되는 석기가 채집된 점, 주변의 안동과 청송 등지에서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했을 가능성은 높다고 추정하고 있다.

현재의 의성을 향한 어느 한 시점에 고인돌 사회가 있다. 의성에는 강변을 따라 다수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있는데 위천 유역의 다인면, 단밀면, 봉양면 일대에 50여 기, 미천 유역의 점곡면 일대에 20여 기, 쌍계천 유역의 금성면 일대에 40여 기가 있다.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전 기간에 걸쳐 유행한 무덤 양식으로 덮개돌 하나만 해도 수십 톤에 이르는 거대한 것들이라, 고인돌의 주인공은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큰 무덤을 만들 수 있는 지배자의 위치에 있었을 것이라 한다. 보통 땅 위에 넓고 평평한 판돌을 세워 묘실을 만든 다음 바닥에 시신을 안치하고 덮개돌을 올려놓은 북방식과 지하에 묘실을 만들고 그 위에 돌을 괴어 덮개돌을 올려놓은 남방식, 남방식과 비슷한데 고인돌이 없이 지하에 만든 묘실 위에 바로 덮개돌을 올려놓은 개석식으로 분류한다. 의성 지역에는 남방식의 변형인 개석식 고인돌이 많다. 몇몇 고인돌의 덮개돌에는 성혈(性穴)이라는 작은 구멍들이 보이는데, 농경을 위한 별자리로 보기도 하고 풍요와 다산, 사후의 영생을 기원하는 주술적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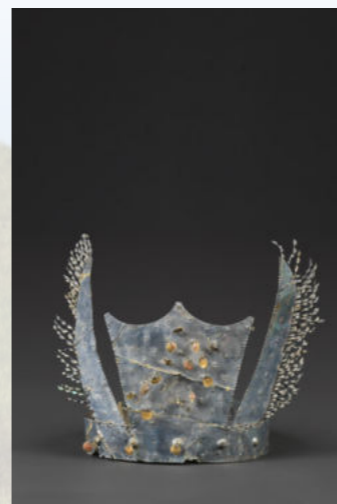
의성 지역의 고인돌로 보아 적어도 청동기~초기 철기 시대에는 강력한 정치력을 가진 집단이 출현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정치 집단이 이후 건국되는 초기 국가 조문국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훗날 조문국 형성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의성 지역에 조문국이라는 삼한 시대의 초기 국가가 있었다는 것은 기록으로 남아 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고려 시대 의성부였던 문소군은 원래 조문국이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 『고려사』,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도 조문국에 대한 기록이 있다. 『대동지지』, 『읍지』 등의 기록에 따라 현재의 금성면 일대를 중심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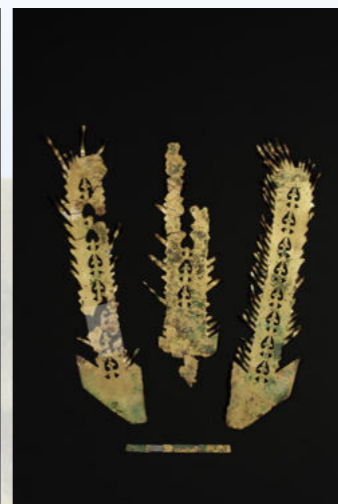
조문국의 형성 시기는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지만 기원전 1세기경 위만 조선 계통의 유민들이 경상도 지역에 정착하며 진한의 소국들로 성장하게 되는데, 조문국도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벌휴이사금 2년(185년)에 사로국에 정벌되었다고 적고 있어 조문국의 실재는 밝혀졌지만 기록이나 고고학 자료 부족으로 조문국의 왕계나 사회, 문화 등 조문국의 실체에 대해선 정작 알려진 게 없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의성에서는 조문국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금성면 일대의 금성산고분군을 내세우고 있다. 금성산고분군은 행정상으로는 대리리, 탑리리, 학미리로 구분되어 있지만 하나의 능선으로 이어져 있으며, 4~6세기 무렵에 축조된 고분군이다.

이 무렵이면 금성산고분군은 명백히 신라 시대의 유산인데 그 앞에는 '조문국 사적지'라는 큼직한 입석 안내판이 서 있다. 왜 신라가 아니고 조문국일까? 신라에 망한 조문국과 신라의 연결 고리에서 의문의 실마리를 풀어 본다. 신라는 2세기 말 조문국을 정벌했지만 6세기에 이르도록 간접 통치 방식을 취했다. 즉, 지방 토착 세력의 기반을 그대로 유지하며 토착 세력들로 하여금 종래의 지역을 통치하게 했다. 그렇다면 금성산고분군이 4~6세기 신라인의 손으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조문국의 근거지인 만큼 멸망한 조문국의 전통을 상당 부분 계승했을 것이다. 또 주인이 바뀌었을 뿐 당시 고분을 축조한 의성 지역의 신라인은 조문국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런 연계성으로 보면 신라인이 만들고 신라인이 묻힌 금성산고분군 앞에 '조문국 사적지'라는 입석을 당당하게 세운 이유가 이해된다.



은관, 황남대총 남분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금동관, 傳 집단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금동관, 의성 탑리 출토, 국립대구박물관

금성산고분군에서는 다수의 토기를 포함하여 금동관·금동관모·장신구·마구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돌무지덧널무덤과 이를 변형시킨 유사돌무지덧널무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탑리리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관의 모양이 새롭다. 띠 모양의 테두리 위에 가장자리를 가늘게 자른 후 이를 꼬아 깃털 모양으로 만든 세움 장식을 세 개 세웠다. 익히 보아 오던 출토자 모양의 장식을 겹쳐 올려 세우고 뒤쪽에 사슴뿔 장식을 세운 신라 금관과 전혀 다르다.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은관이 이와 비슷하긴 하지만 신라 지역에서는 출토된 예가 많지 않다. 오히려 이처럼 깃털 모양의 세움 장식을 붙인 관과 관식은 고구려 지역에서 많이 출토되었다. 이 금동관은 고구려의 수도였던 집안

에서 출토된 금동관과 매우 비슷하며, 신라화한 지방 토착 세력들이 신라 왕에게서 받은 하사품으로 추측된다. 당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신라의 수도인 경주와 지방인 의성의 관계, 의성 지역 지배층의 대외 관계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

금성산고분군을 중심으로 의성 지역에서 출토되는 토기는 경주를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 제작된 토기와 다른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특별히 '의성양식 토기'라 부른다. 굽다리 접시와 목항아리, 뚜껑 등에서 그 특징이 잘 나타난다. 굽다리 접시는 음식을 담는 부분인 몸통이 깊고 굽다리 아랫부분에 뚜렷한 돌대가 돌려져 있다. 항아리는 목의 길이에 따라 짧은 목항아리와 긴 목항아리로 나누며, 굽이 달린 것과 달리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는데 8세기 이후 굽다리 접시와 함께 소멸되었다. 의성양식의 긴 목항아리는 몸통에 비해 목이 상대적으로 길고 몸통에 여러 줄의 돌대가 돌려져 있다. 특히 원통 모양의 긴 굽다리가 달린 굽다리 항아리는 다른 지역에서는 출토되지 않고 오직 의성 지역에서만 출토되었다. 이처럼 지역색이 강한 의성양식 토기는 늦게까지 그 특징을 유지하며 안동시 일직면 조탑동 일대를 포함하여 의성군 금성면 탑리리부터 미천과 위천을 따라 낙동강에 이르는 수계 일대에서 출토되고 있다.

있는 줄도 몰랐던 나라, 조문국. 이 생소한 나라가 의성을 달리 생각하게 한다. 의성 땅에서 찬란하게 꽃 피웠던 영광은 세월을 넘어와 침묵으로 옛 무덤과 함께 흙 속에 잠들어 있다. 신비의 베일에 싸여 있던 조문국이 이제 막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옛 무덤들 너머 이 땅에 살았던 조문국의 삶이 다시 깨어나 우리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건네 주기를 희망한다. 🐾

계윤애 회원



굽다리 짧은 목항아리, 의성조문국박물관



석탑리 방단형적석탑

산길은 아니다. 구릉지 같은 길 한편에 돌무더기가 탑을 쌓고 있다. 꺾꺾 눌러 쓴 손편지 같은 표정이 특이한 풍광이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만든 소쿠리 모양, 의성을 만났다. 단풍놀이를 나선 관광객들이 돌탑을 쌓으며 가을을 만끽한다는 기사가 떠오른다. 돌이 있는 곳이면 사람들은 이내 탑을 쌓기 시작한다. 누군가 시작한 탑 쌓기에 정성스레 돌을 고르며 마음을 엮는다. 공동체 의식으로 발현되던 탑은 마을의 재앙을 막기 위한 방책이었고, 시대적 요구와 이에 부응한 사람들의 발원을 담았다. 돌탑은 큰 돌 작은 돌 둥글고 네모진 돌이 있고, 독특한 모양의 누운 돌과 세운 돌이 있어 보고 또 보게 된다. 중심에서 사방으로 확장하며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단을 쌓았다. 감실이 없었다면 장군총이나 석촌동 고분을 닮은 돌무덤이다. 감실 안에는 세월을 견뎌낸 작은 불상이 모셔져 있다. 얼핏 보면 아기를 안은 듯 보이지만 두 손을 모은 자세이다. 산자락과 호응하는 돌탑의 정취靜趣에 따뜻한 울림을 더한다. 돌탑이 있어 동네 이름도 석탑리인가 보다.

탑을 만나기 전, 의성 하면 마늘 향기가 났다. 마늘의 유명세만큼 의성군민의 자랑인 탑리리 오층석탑은 동네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다. 높이 올라선 토축 위 푸른 하늘을 배경 삼아 오롯이 서 있는 모습은 쿵쿵쿵쿵 심장을 두방망이질해 댄다.

# 돌탑의 만지작거리다

돌계단을 오르면 무엇보다 먼저 오층의 정연한 지붕돌이 흐트러짐 없는 반듯함으로 마중 나온다. 지붕돌의 낙수면과 받침은 벽돌을 쌓은 것처럼 보여 전탑을 연상시킨다. 그 견고함과 가볍지 않은 장중함은 중생의 기쁜 호흡을 식혀준다. 현존하는 신라 석탑 중 가장 오래된 분황사탑 다음으로 건립되어 역사성에도 무게중심을 가진다. 많은 양의 화강암 부재로 석탑을 구성하는데, 기단부의 모서리 기둥 隅柱과 사이 기둥 撐柱 그리고 일층 몸돌에 놓인 별석 別石의 모서리 기둥은 목조건축에서 보이는 민흘림기둥이다. 일층 몸돌 모서리 기둥 위에는 주두를 놓아 지붕돌받침을 받고 있으며, 주두 옆으로 창방과 평방을 연상시키는 부재가 기둥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탈리리 오층석탑

돌로 만든 주두라니 신기함과 만지고 싶은 생각에 닿지 않는 손을 자꾸만 뻗친다. 남쪽 면에는 감실을 두어 공간을 만들고, 감실 문 앞에는 신방석 信防石을 설치하였다. 주두 대신 신방석을 만져 본다. 능숙하게 돌로 다듬어졌지만 그저 목조 건축이다. ‘신앙의 상징성과 종교적인 예배와 공덕을 하기 위한 석탑은 목탑의 가구 결구 수법을 모방하여 목재를 석재로 전환시키는 창의성을 보여주었다.’ 라는 글 그대로이다. 초기 석탑의 기단부와 일층 지붕돌까지를 손 액자로 잘라 보니 사찰의 대웅전과 꼭 닮았다. 보아도 보아도 다 못 보는 신비스러운 모습이다. 4년에 걸친 보수공사로 4, 5층 몸돌과 옥개석에서 석재를 연결하는 은장이 발견되었고 교체한 석탑 부재는 보존처리하여 토축 아래에 전시하고 있다.



탈리리 오층석탑 부분

통일신라 후기, 명작 탑리 오층석탑은 모방작을 낳는다. 의성에서 가장 유명한 빙혈로 가는 길목이다. 빙혈은 한 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곳으로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올라 있는 곳이다. 멀리서 보면 지붕돌의 전탑식 구성 때문에 탑리리 오층석탑과 비슷해 보여도 후대 양식적 차이 때문인지 일층 몸돌에 아쉬움이 있다. 원작의 명성을 따라갈 수 없다는 생각도 잠시 빙혈 쪽에서 바라본 빙산사터 오층

석탑은 주변 산봉우리와 어울려 또 다른 멋을 품어낸다. 하늘 향해 쪽 뻗은 세장한 미감은 여름 인파가 떠나간 적막함에 온기를 주고, 사람 귀해 보이는 의성 대신 가볍게 인사를 건네는 것 같다. 삼층 지붕돌에서 발견된 금동제사리함과 금동광배, 녹유리사리병 그 외에 여러 가지 공양품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이라 한다.

의성에는 유난히 절 이름이 전해지지 않은 채 홀로 세월을 이겨가는 근사한 탑이 많다는 생각을 한다. 관덕동 역시 석조보살좌상을 친구 삼아 잘 생긴 삼층석탑이 서 있다. 따사로운 햇볕과 아늑한 공간에도 불구하고 근처에 버려진 한옥의 잔상 탓인지 이유 없는 스산함이 느껴진다. 9세기 통일신라의 아담한 탑은 앞서 만난 오층석탑의 웅장한 무게를 덜어내고 우아한 기품을 전한다. 단지 삼층석탑의 잘 생김을 방해하며 상층기단 네 귀퉁이에 앉아 있는 복제품 사자상이 불편하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음모로 반출당할 뻔했던 석탑은 의성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로 위기를 모면했다. 이 사건으로 암사자의 품 속에서 젖을 먹는 새끼 사자의 형상이 동양에서 가장 오랜 귀중한 조각품이란 평가가 알려지면서 돌사자 중 보존 상태가 좋은 한 쌍이 다시 일본인에 의해 약탈되었다. 불법을 수호하는 사자상에 정감 있는 이야깃거리를 담은 옛 장인의 마음이 궁금해진다. 국립대구박물관에서 남은 돌사자 한 쌍을 만나고 싶다.

느리게 휘어진 상승곡선이 안정감을 주는 지붕돌 처마 밑으로 시선을 내린다. 하층기단의 면석과 일층 몸돌에 도드라진 비천상과 보살상 장식이 아름답다. 상층기단의 팔면에는 팔부신중 대신 특이하게 사천왕상과 보살상이 짝지어 새겨져 있다. 그 모습에 끌려 가까이 다가 담으려 하면, 욕심을 질타하듯 뻑뻑한 햇빛이 쏟아진다. 서운함에 하늘을 올려다보면 햇빛은 잠시 고개를 돌리고, 다시 셔터를 누르면 비밀스럽게 내려와 꽃힌다. 도달할 수



빙산사터 오층석탑

없는 깊이를 알려주듯이. 어쩐지 아늑한 공간이 서늘한 느낌을 주는 이유 같다.

내륙지방을 답사할 때 인적이 드물다는 생각을 늘 하지만 의성은 특히 더한 것 같았다. 그런데 ‘소멸 위험지역의 순위…… 그중 전국 1위는 의성, 30년 내 사라질 수도 있다.’ 는 기사를 접했다. 충격이다. 사라져가는 것들, 대다수의

노년층이 지키는 소도시들이 소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도시 골목에 대한 안타까움보다 더 근원적 아픔이다. 관덕동 삼층석탑의 불법 반출을 피하던 도둑들을 한마음으로 몰아내던 의성의 힘은 사람이었다. 의성 부군수가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한 일본 후쿠이현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탐방단을 꾸렸다고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요즘 젊은 이들의 마음을 읽는 것이라 생각한다. 빛바랜 흑백사진의 신선함에 끌려 즉석사진 부스로 모이는 그들은 흑백사진을 다시 인스타그램에서 최종 소비하는 데이터 세대이다. 바로 그 젊음들이 소멸 위협에서 의성을 지켜내는 힘이다.

얼마 전 도시건축 비엔날레에서 도시의 고유한 냄새를 채집해 지역을 감지하는 신기한 체험을 했다. 텅 빈 기억처럼 채집된 냄새로 옛날의 영상을 추억으로 소환하는 세상이 오는 건 아닌지. 오늘, 맘 한 쪽 비밀스러운 햇살과 함께 돌아온 귀한 돌탑은 인간이 떠난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자리할까. 안타까운 의성에 겨울이 오고 있다. 겨울이 지나면 그저 봄이 오는 줄 알았다. 지금이야말로 오늘의 흔적과 내일의 희망이라는 돌탑을 꼭꼭 쌓아올려야 할 때가 아닐까?

정은경 회원

## 정조의 과학 수사와 『무원록』 사랑



김준근, 살인에 검사하는 모양, 함부르크 민족학박물관

조선후기에 이르러 덕치(德治)와 교화를 강조할수록 그리고 흠휰(欽恤)의 정신을 고취할수록 엄형이나 고문을 통한 자백은 그만큼 어려워졌다. 이 틈을 파고들려는 범인들의 ‘악의惡意’는 기승을 부렸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물증과 사인(死因)의 확보를 위해 법의학 서적인 『무원록無冤錄』의 중요성도 그만큼 커져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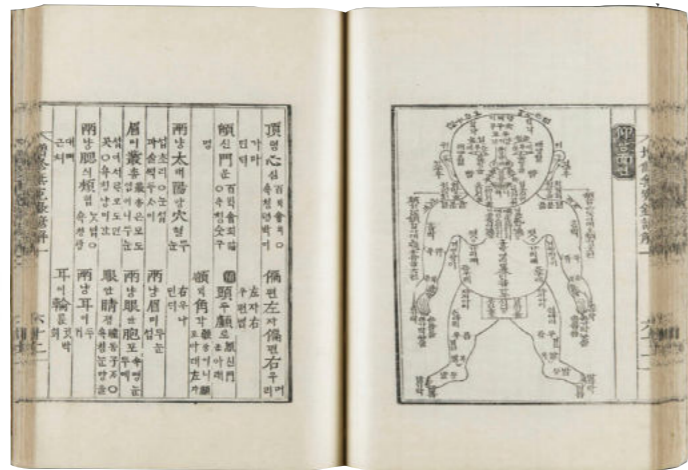
『무원록』에 대한 정조의 신뢰는 무한했다. 매년 수십 건의 살육 사건을 심리하던 정조는 율관(律官)으로 하여금 『무원록』을 가지고 항시 대령하도록 했다. 의문이 생기면 바로 해당 조문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sup>1)</sup> 정조는 모든 살육의 조사는 『무원록』에 근거하도록 했다. 살육 사건의 경우 실인(實因)의 확정이 가장 중요한데 많은 검관들이 『무원록』에 없는 내용과 자신의 의견을 뒤섞어 검안을 작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드시 『무원록』을 준거 삼도록 한 것이다. 위배한 모든 검관은 즉시 논감(論勘) 조치했다.<sup>2)</sup>

그는 『무원록』의 보급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긴요한 책으로 『무원록』만 한 것이 없는데 여전히 전국의 보급 상황은 만족스럽지 못했다.<sup>3)</sup> 무원록 언해본이 완성되었을 때 정조는 체제공에게 전체적인 감수를 요구했다. 모두 검토하되 한 글자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간행하지 않겠다고 으름장도 놓았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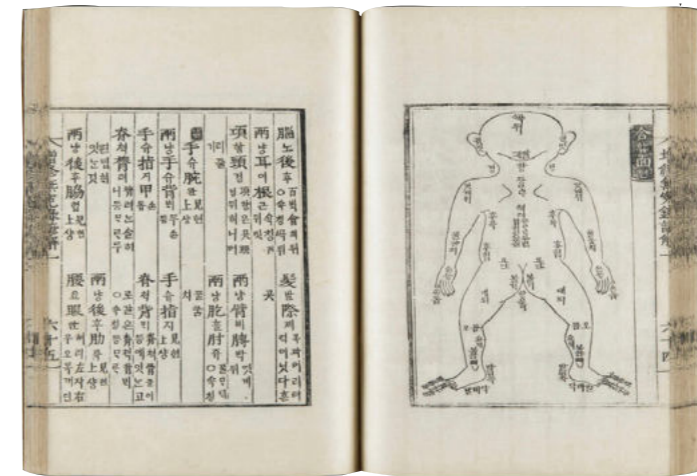


관덕동 삼층석탑





『중수무원록언해』 양면, 규장각



『중수무원록언해』 합면, 규장각

또한 율학교수 2~3명을 전국에 보내어 향품 가운데 충민한 이들을 골라 『무원록』을 강독하도록 조치했다. 당대 최고의 율학 김취하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검시 업무에 참여할 인재를 길러낼 방도였다. 비변사의 관료들은 비용과 인력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했으나 정조는 이를 강행하였다.<sup>5)</sup>

정조 본인의 『무원록』에 대한 이해 역시 매우 깊었다. 정조 치세의 살육 관련 사건을 심리한 『심리록』에는 『무원록』에 근거하여 의욕을 변화하고 범인을 확정하거나, 범인으로 몰린 피해자를 구해낸 사례들이 수없이 많다. 이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는 허술하게 작성된 검안을 비판했다. 윤성태와 옥취정이 다투다가 살육이 된 사건을 보면 윤성태가 옥취정의 상투를 잡고 얼굴을 찢었다는 검안의 내용과 달리 시장屍帳에는 옥취정의 얼굴에 상처 자국이 없었다. 정조는 이를 문제 삼아 재조사를 명했고 허술하게 조사하고 엉터리로 검안을 작성한 검관을 처벌했다.<sup>6)</sup> 이러한 사례는 일일이 거론하기도 어렵다.

정조는 지방에서 보고된 검안을 『무원록』의 내용과 대조하면서 검토하고 또 검토했다. 밤을 새워 항상 새벽닭의 울

음을 들었다고도 기억했다. 의주 변채강의 옥사 사건을 보면 변채강은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한 이덕태를 구타 살해했다. 사건은 구타로 인한 죽음인지 혹은 이후의 병사인지를 둘러싸고 10년을 끌었다. 본 사건의 검안을 꼼꼼히 파악한 정조는 구타사를 부정하고 병사를 증명했다.

근거는 시장屍帳의 구타 증거가 『무원록』의 내용과 모순이 된다는 것이었다. 즉 신문과 태양혈은 급소로 이 부위를 구타하였다면 구타사의 증거로 삼을 수 있지만, 이덕태의 경우 신문과 태양혈에서 대략 2촌 떨어진 부위를 가격 당했다. 그렇다면 과연 ‘급소’라 할 수 있을까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정조는 “가령 귀뿌리에서 귓바퀴까지의 거리가 수푼數分에 불과하지만 귀뿌리는 요해처인 데 반해 귓바퀴는 그렇지 않으며, 인후咽喉에서 턱까지는 1촌에 불과하지만 인후는 요해처이고 턱은 그렇지 않다.”는 논거를 들었다. 과연 급소부위를 맞아 죽은 것으로 확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논리다. 둘째, 정조는 『무원록』의 ‘치명상’은 청흑색靑黑色 혹은 자흑색紫黑色의 상흔이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덕태의 경우 왼쪽 귀에 피가 약간 흐른 상처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귀는 급소가 아닌 데다 상흔의 심각함도 치명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타사를 확

증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결국 이덕태는 병사로 처리되었고, 변채강은 살인의 죄를 벗어나게 되었다.<sup>7)</sup>

다음은 전주부의 양시돌 사건이다.<sup>8)</sup> 양시돌이 한설운金韓雪云과 술을 마시고 다투다가 구타하여 그날로 죽었는데,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위장한 사건이다. 정조는 자액自縊이 아니라고 보고 재조사를 명했다. 그리고 『무원록』의 목을 달아매 위장한 경우 목의 상처가 흰빛을 띤다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했다. 처음 검시과정에서 이를 살피지 않은 검관을 질책한 것은 당연했다.

정조는 검관들이 『무원록』을 깊이 공부해야 의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9)</sup> 황해도 배천의 조재항은 아내 윤씨를 구타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훗날 무고로 밝혀졌지만 소홀한 검시가 문제였다. 정조는 최종 판부에서 두 가지 중요한 ‘실수’를 거론했다. 먼저 『무원록』에 따라 손가락으로 상흔을 눌러 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죽기 전의 상흔은 손가락을 눌렀다가 떼면 청홍색을 유지하지만 죽은 이후의 상처라면 흰색으로 보일 것이다. 그런데 본 사건의 검안은 형식적으로 손가락을 눌러

본 후 발변 여부도 분별하지 않은 채 구타상흔으로 단정했다. 둘째, 물을 부어 상흔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무원록』은 충분히 시신에 물을 부어 진피층의 상처를 확인하도록 했다. 그런데 초검과 복검 모두 이 방법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소루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두 명의 검험관은 자세히 살피지 않은 죄를 면하기 어려웠다. 조재항은 혐의를 벗고 석방될 수 있었다.

정조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지방관들 역시 『무원록』의 지식에 근거해야 했다. 흡곡의 문장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강원감사 이면공은 『무원록』을 심분 활용했다. 문장오가 신종견을 구타 살해한 정범으로 조사 중인 사건이었다. 수차례 이루어진 검안에는 모두 발에 차인 상처부위를 결분골缺盆骨과 심감心坎으로 표기했다. 『무원록』에 의하면 해당 부위는 속사처로 3일을 넘지 못하고 죽는 급소였다. 그런데 신종견은 11일 동안 살아 있었다. 이를 기초로 신종견의 병사를 의심한 이면공은 갈증과 신열 그리고 두통을 앓았던 신종견이 기장稷과 박籛을 다려먹거나 똥물을 약으로 사용한 정황증거를 들어 상한傷寒과 같은 역병에 의해 사망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문장오의 감경減輕을



요구한 것이다. 정조는 강원감사의 의논이 충분한 논리적 근거가 있다고 칭찬하고 형조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곧 문장오의 감사정배減死定配를 지시했다.<sup>10)</sup>

물론 모든 살육 사건을 『무원록』의 법리로만 처리할 수는 없었다. 정조 치세에 검서관으로 유명한 유득공은 가평사도 시절 살육 사건을 잘못 처리하여 파직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가평의 지득운은 공신의 후손이었지만 쇠락한 상태였다. 그런데 풍헌을 지낸 김가인백이라는 자가 상민常民에 불과한데도 부민富民으로 권세를 누리자 지득운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김가인백은 일방적으로 혼서婚書를 지득운에게 보냈고 지씨 집안에서는 당연히 이를 거절했다. 화가난 김가인백은 자신의 아들과 지씨의 딸이 이미 화간한 사이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수치스럽게 생각한 지득운의 딸 지씨는 곡기를 끊고 굶어죽었다. 가평사도 유득공은 본 사건을 ‘병사病死’로 처리했다.<sup>11)</sup> 유득공은 『맥록脈錄』에서 ‘눈을 감고 입은 열려 있으며 발바닥이 노랗다.’고 기술하고 『무원록』의 『시기사時氣死』 조항을 참고했다. 굶어죽은 것이 아니라 역병에 전염되어 죽었다고 보고한 것이다.

당시 정조는 대노했다. 정조는 판부判付를 통해 혹 병으로 죽었다고 해도 병들어 죽게 되었다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근본은 김가인백의 핍박과 무함이 있었다는 것이다. 규중의 아녀자를 핍박하여 원한을 품게 하고 이 때문에 병들어 죽었음을 깊이 생각하라는 취지였다.

정조의 『무원록』의 활용은 이처럼 섬세하고도 또 신중했다. 법법에 근거하되 사건의 정황(情)을 살피고 인간의 도리(理)까지 헤아려야 하는 정情·리理·법法の 삼박자가 요구되었다. 제대로 된 사법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무원록』은 필수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훗날 다산 정약용은 정조의 심리 과정을 찬탄한 바 있다.<sup>12)</sup> 정조가 단지 『무원록』에 밝아서만도 아니고 인륜과 교화만을 강조해서도 아니었으며, 사건의 맥락과 정황을 잘 따져서만도 아니었다. 정조의 살육 처리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 즉 정·리·법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사법 정의를 이루어낸다는 것이다. 정조 역시 자신의 ‘의리義理(정의)’가 바로 그 지점(時中)에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김 호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1) <일성록> 정조8년(1784) 윤3월 14일.  
 2) <일성록> 정조 9년(1785) 7월 10일.  
 3) <일성록> 정조 9년(1785) 6월 8일.  
 4) <일성록> 정조 15년(1791) 3월 15일.  
 5) <일성록> 정조 10년(1786) 1월 22일.  
 6) <審理錄> 기해년(1779) ○ 황해도 黃州 尹成太 옥사  
 7) <審理錄> 기해년(1779) ○ 평안도 義州 邊采江 옥사  
 8) <審理錄> 신축년(1781) ○ 전라도 全州 梁時亨 옥사  
 9) <審理錄> 경자년(1780) ○ 황해도 白川 趙載桓 옥사  
 10) <일성록> 정조 19년(1795) 윤2월 27일.  
 11) <古芸堂筆記> 〈池女獄案〉; <심리록> 을묘년(1795)  
 ○ 경기 加平 金加仁白 옥사; <일성록>  
 1795년(정조19) 6월 2일, 7월 22일 등 참조.  
 12) <欽欽新書> 권5 祥刑追議1 〈首從之別〉3

##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예술을 향한 욕망 - 강건왕 아우구스투스



강건왕 아우구스투스, 드레스덴박물관연합 © Staatliche Kunstsammlungen Dresden

왕이 꿈을 꾸다. 금은보화가 콕콕 쏟아진다. 왕이 꿈을 꾸다. 형형색색의 도자기가 일렬로 줄을 선다. 왕이 꿈을 꾸면 또 하나의 궁전이 나타난다. 이번에 전시 중인 「독일드레스덴박물관연합 명품전」은 강건왕 아우구스투스가 드레스덴에게 내린 선물이다.

작센 선제후 요한 게오르크 3세의 2남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투스는 학문보다는 전술과 승마에 능하고 진취적인 성향으로 10대에 그랜드투어Grand Tour에 올랐다. 마드리드, 리스본, 제노바, 베네치아, 피렌체 등을

돌며 바로크 시대 절대왕정의 진면목과 당시 유행하는 선진 문화를 체험하였다. 특히 루이 14세의 궁전을 방문한 경험은 그의 예술적 감성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 루이 14세와 같은 군주를 꿈꾸고 실제로 황금자수를 놓은 의복을 입고 온몸을 보석으로 치장하여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스스로 태양왕이 되고자 하였다. 고 품격의 진귀한 보물들을 수집하고 실력 있는 세공사, 예술가들에게 작품을 의뢰하고 그 소장품을 전시하기 위해 진열방식도 세련되게 연출하였다. 더 나아가 드레스덴에 웅장한 건축물을 착공하기 시작하였다.



퍼레이드 장식함, 그린볼트박물관  
© Staatliche Kunstsammlungen Dresden

‘드레스덴을 방문한다면, 그린볼트라 불리는 보물창고를 가장 먼저 가보아야 한다.’ 이미 18세기에 유럽 여행안내서에서 추천하고 있다. 그린볼트는 작센 선제후들의 비밀금고를 공개하면서부터 유럽 최초의 박물관이 된 것이다. 그 그린볼트 보물의 방에서 자개판들이 반짝반짝 아우성치는 <퍼레이드 장식함>이 나를 잡아당긴다. 사각형, 오각형, 지붕모양, 아치모양 등 아주 작은 자개판을 하나하나 장식핀으로 고정하고 도금된 은으로 둘러친 틀장식마저도 돋보기를 들이대야 할 것처럼 복잡하고 정교하게 세공하였다. 뚜껑 위에는 금개구리 한 마리가 왕궁의 수문장이나 된 듯 한껏 긴장한 채로 올라앉아 있다. 16세기 유럽에서는 인도 구자라트의 자개 장식품을 들여와 제작한 금세공품이 유행하였다. 뉘른베르크에서 활동한 니콜라우스 슈미트가 나무 몸통에 인도산 자개판을 붙여 제작한 작품이다.

아우구스투스의 보석컬렉션은 왕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최상의 아이템이다. 가장 화려한 작

품을 주문 제작하고 또 극적인 연출로 자신을 한껏 잘 드러낸다. 화려한 치장은 초대된 하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맞춤 컨셉트이다.

아우구스투스는 재위 기간에 로즈컷·브릴리언트컷 다이아몬드, 홍옥수, 마노 등 아홉 종류의 보석장식세트를 제작한다. 당대 최고의 금세공사 요한 멜히오르 덩글링거가 제작한 <마노 장식세트 중 모자에 다는 깃털 장식>은 193개의 다이아몬드들이 색상이며 세팅이며 서로서로 뿔내기에 여념이 없다. 예식에 등장한 왕의 모자 위에서 커다란 붉은 다이아몬드와 줄줄이 매달린 다이아몬드 깃털이 하늘거리는 모습을 보면 탄성과 함께 왕의 위용에 짓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은 비록 유리장 안에 갇혀 있지만 눈이 부실 정도로 전시장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만난 보물들의 화려함과 섬세한 세공기술도 놀랍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그 소장품을 보관하는 가죽 케이스이다. 가죽 케이스 단독으로 이름을 달고 전시에 나와도 엄지손이 올라갈 만큼 예술성이 풍부한 가죽공예품이다. 작가의 정성이 작품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고 포장까지 완벽해야 작품이 마무리되는 숭고한 장인정신에 고개가 절로 숙여진다.

강건왕 아우구스투스의 예술적 욕망은 당시 온 유럽에서 인기를 끌었던 아시아의 도자기에까지 이르렀다. 진귀한 중국, 일본의 수출용 도자기를 수집하여 유럽 최대 규모의 컬렉션을 자랑한다. 수집에만 만족하지 않고 연금술사 요한 프리드리히 뵘거를 통해 제작방법을 연구하여 30여 년 만에 마이센 복제본을 완성해 낸다. 유럽 최

마노 장식 세트 중 모자에 다는 깃털 장식, 그린볼트박물관  
© Staatliche Kunstsammlungen Dresden



무굴제국 아우랑제브 황제의 왕좌 부분

초의 도자기이다. 은은하고 깊은 맛은 없지만 대담하게도 아시아 자기와 마이센 자기를 같이 전시하는 호기를 부리고 그 추진력으로 도자기 궁전까지 계획한다.

중국 도공들이 황제를 위한 도자기 악기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나 결국 성공해냈다는 중국 여행기를 읽고 강건왕은 마이센 공장에 도자기 악기를 주문하였다. <일본 궁전의 마이센 카리용>은 4m 높이의 나무 케이스에 교회용 오르간처럼 조각을 하고 그 안에 도자기 종을 매달아 차임벨 소리를 낸다. 아쉽게도 생전에는 완성을 못 보고 아들 아우구스투스 3세가 여러 시행착오 끝에 완성해 냈다. 맨 꼭대기에 올린 왕관은 아버지 강건왕의 못 다 이룬 꿈을 향해 아들이 바치는 헌정의 의미가 아닐까. 카리용이 연주하는 헨델의 음악이 웬지 불안정하게 들린다.

이번 전시의 큰 자랑거리는 드레스덴 궁전을 재현한 초고화질 사진 구조물이다. 외르크 쇠너는 다각도에서 촬

영한 수천 장의 확대 사진을 섬세한 보정 작업을 거쳐 하나의 작품으로 합성하였다. 벽면을 장식한 사진 구조물을 배경으로 한 진열장 속의 보물들을 보면서 실제로 드레스덴 궁전에 들어와 있는 황홀함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금은보화의 방의 시작을 알리며 눈앞에 펼쳐진 <무굴제국 아우랑제브 황제의 왕좌>는 그 찬란한 금빛이 어둠을 조롱하듯 눈이 절로 커진다.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등 6천 여 점의 보석들이 손에 닿을 듯 잡힐 듯 내뻗은 손끝이 허망하다. 실 새 없이 카메라 소리가 울린다. 고도의 확대사진 기술을 활용한 전시는 실물을 직접 접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약간의 허탈함을 불러오지만, 한편으로는 지리적, 경제적 연유로 멀기만 한 유물을 간접적이라도 경험해보는 기회가 된다. 앞으로 새로운 전시방법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강건왕 아우구스투스는 바로크 시대 절대 왕정의 권위를 예술로 승화시킨 컬렉터이자, 예술 후원자, 전시 기획자, 축제 창시자, 천재 건축가, 박물관 설립자 등 드레스덴 시의 총예술연출가였다. 단 한 사람의 욕망이 예술의 도시를 완성해냈다. 왕의 꿈이 현실이 되어 도시 전체가 보물창고로 이뤄진 드레스덴이 부럽다.

최예정 회원

일본 궁전의 마이센 카리용, 도자기박물관  
© Staatliche Kunstsammlungen Dresden



## 장한중의 어해도

국립중앙박물관 2층 회화실에 걸려 있던 <어해도>를 떠올려본다. 지난 겨울 박물관으로 산책 나설 때마다 꼭 찾아가 만나곤 했던 유명한 물고기 떼의 그림.

지금은 다른 그림이 그 자리에 전시되어 있지만 나는 아직도 이 그림을 보면서 느꼈던 편안함과 고요함을 잊지 못한다. 8폭의 연작 그림이었는데, 그중 내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여섯 번째 그림이었다. 이어폰을 통해 슈베르트의 잔잔한 <즉흥곡>을 듣고 있을 때에는 조용히 움직이는 물고기들이 만져졌고, 베토벤의 <월광소나타>가 들려오면 수면에 반사되는 달빛이 찬란하게 보이는 듯했다. 감상을 위해 마련된 의자에 앉아 오래오래 삶에 대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그림이라고나 할까?

작가가 궁금해졌다. 김홍도, 신윤복, 심사정 같은 유명화가의 이름만 익숙했던 내게는 '장한중'이라는 이름은 생소했다. 장한중과 어해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장한중은 1768년(영조 44)에 태어나 1815년(순조 15)까지 살았던 조선 후기의 화가로, 본관은 인동, 자는 광수, 호는 옥산, 열청재라 했다. 대대로 화원을 지낸 인동장씨 집안에서 장륜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역시 도화서 화원인 김응환의 딸과 혼인했다. 1795년의 <원행음묘정리의궤도>와 1802년의 <순조순원후가례의궤도> 제작에 참여했다. 장한중은 물고기와 해물을 그린 어해도로 유명했는데, 유재건의 『이향견문록』에 따르면 어려서부터 송어, 잉어, 게, 자라 등을 사다가 그 비늘과 껍질을 자세히 관찰하여 실물과 똑같이 그려내 그 생생함에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다양한 소재(쏘가리, 붕어, 미꾸라지 등의 민물고기와 소라, 조개류, 자라, 게 등)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있었으며, 김인관의 화풍을 이어받고 부분적으로 김홍도의 화풍을 가미하여 조선 후기 어해도의 전통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작품으로 <어해도 8폭 병풍>, <어해화첩>, <송사리>, <이어도> 등이 전해진다.



장한중, 물고기, 국립중앙박물관



장한중, 낙지와 게, 국립중앙박물관



어해도, 조선민화박물관

어해도에는 붕어, 잉어, 송어, 방어, 병어, 상어, 가오리, 가자미, 홍어, 뱀장어, 꼴뚜기, 송사리, 메기 등이 주로 등장하며 게, 새우, 조개, 거북 등이 물 속의 바위나 해초 옆 또는 꽃나무 아래서 쌍쌍이 짝을 지어 평화롭게 노는 장면을 주로 그렸다. 물고기는 입신 출세와 다산을 상징하는 길상적 소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일찍부터 물고기를 소재로 한 그림을 많이 그렸다. <반구대 암각화>를 시작으로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많은 어종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감상화로서 어해도가 본격 등장한 것은 18세기 전반의 김인관 등 몇몇 화가들에 의해서이며, 18세기 후반에 크게 성행했다. 이 시기에는 어해도만을 즐겨 그린 화가들이 등장하는데, 장한중, 장준량, 조정규, 이한철 그리고 게 그림에 특히 뛰어났던 지창한 등이 그들이다.

이러한 어해도의 유행은 19세기 후반이 되면 민화로 이어진다. 민화에서는 사실성보다 부부금실이나 다산 같은 길상적이고 현실적인 소망을 중시했다. 따라서 <어락도>처럼 물고기들이 쌍으로 등장해 사이좋게 노니는 장

면이 많아진다. 새우는 등이 굽었기 때문에 '바다의 노인'이라는 뜻의 해로海老가 되고 이는 다시 부부가 함께 늙어간다는 해로偕老의 뜻으로 사용된다. 게의 딱딱한 껍질을 등갑이라 하는데, 이때 갑甲이 1등을 뜻한다고 하여 과거에 합격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소재도 다채로워지고 지역별 특색도 나타나며 해학적 요소가 가미되는 등 민화는 당시 사람들의 미의식과 소망을 담아내는 역할을 했다.

장한중의 물고기 그림에서 출발한 호기심이 민화에까지 이르렀다. 민화는 10여 년 전 작고하신 시아버님께서 평생 아끼고 소중히 간직해 온 그림이어서 더욱 정감이 간다. 경제적으로 약간만 여유가 생기면 작은 그림 한 점 들고 병글병글 웃으며 퇴근하셨다는 아버님, 저녁을 드시면서도 밥 한 술 뜸 때마다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다는 아버님, 지금도 어머님께서도 집안 구석구석 민화를 걸어두고 바라보시며 곁에 계시지 않는 아버님과 대화를 이어가고 계시는 것 같다. 🐟

유주현 회원



# 물고기, 고기, 물고기

가끔 그럴 때가 있다. 평소에 흔하게 쓰던 어떤 단어를 이유 없이 자꾸 곱씹다가 그 말이 아주 낯설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때가. 어느 날 ‘물고기’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물에서 사는 고기. 살아 있는 닭에게 닭고기라 하지 않는 것처럼 오늘날엔 고기라는 말은 대체로 식재료, 즉 죽은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물에 사는 것들은 살아 움직이는데도 고기라고 부른다.

아무래도 인간과 물고기는 초면부터 먹고 먹히는 관계였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도 ‘생선’이라는 단어와는 느낌이 다른, 살아도 고기 죽어서도 고기라고 부르는 묘한 작명법에 대해 계속 반추하게 된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물고기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은 당연히 겨울 못이고, 그 다음으로 많이 사는 곳은 도자기들이 있는 3층이다. 물론 연못에 있으나 전시실에 있으나 박물관까지 흘러 들어왔다면 고기로서 들어온 것은 아니다.

물고기로 주린 배를 채우던 사람들은 생활이 나아지자 예쁜 것들은 키우면서 감상하기도 하고 나아가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 물고기에 상징이나 의미를 부여하면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 수많은 물고기 그림이나 공예품들을 남기게 되었을 것이다.

백자실로 들어서서 몇 걸음 걷지 않아 청화백자 병에서 와글와글 재미있는 녀석들을 만났다. 굽이치는 파도 사이에 수영이 난



백자 청화 어해문 병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것으로 보아 잉어라고 생각되는 두 물고기가 있는데 하나는 눈을 휘둥그렇게 뜬 채 헤엄치고 다른 잉어는 뒤집혀서 튀어 오르고 있다. 한쪽에서는 주둥이가 빠죽한 한 쌍의 물고기가 겹눈질하면서 들어서 뭔가 키득거리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러고 있냐고 묻고 싶다. 조개 넷과 휘어진 새우 두 마리가 있고 큰 게 한 마리는 눈빛이 뭔가 말할 게 있는데 차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또 다른 종류의 물고기가 있고 메기로 보이는 물고기도 보이는데 모두들 짝이 있는 것 같다.

뒷면을 보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쉽다. 분명 내가 오기 바로 전에 뭔가 우당탕탕 우스운 일이 있었을 텐데 안 가르쳐주고 자기들끼리만 속닥속닥하는 중이나 사실은 아직 수습이 덜 된 상황인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실상은 부부금슬, 해로, 출세 등등 온갖 좋은 의미를 다 모은 종합 선물 세트이지만 말이다.

옛사람들은 쌍어문을 참 좋아했나 보다. 분청사기실로 들어서니 국보로 지정된 편병에서, 보물로 지정된 매병에서, 또 여기저기서 암수가 쌍쌍이 헤엄치고 있다. 게다가 물고기는 대체로 표정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는 생물인데도 다들 왜 이리 즐거워 보이는지! 물고기들마저도 짝 없는 인간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선사할 줄이야. ‘사이만 좋다면’ 외롭지도 않고 의지도 되고 재미있는 일이 있을 때 같이 배꼽 잡을 수 있어서 좋긴 좋다. 앗! 그리고 보니 물고기에게는 배꼽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도 엄청난 존재감을 뽐어내는 물고기들도 있다. 아무래도 분청사기는 물고기들을 위한 도자기인가 보다. 그 어디에 이렇게 개성 있고 멋진 녀석들이 있을까?



분청사기 조화 어문 편병, 국립중앙박물관

특히 철화로 그려진 물고기들을 보면 눈이 번쩍 뜨인다. 진한 윤곽에 지느러미는 뾰뾰하게 펴고 주둥이는 뾰족하게 내밀고선 동그랗게 눈을 뜨고 있는데 병이 비좁아 보일 정도로 덩치가 큰데도 불편한 기색이 없이 오히려 거침없고 활발해 보인다. 어차피 사람들이 다 나가면 튀어나와서 밤새 휘젓고 다니면 되니까 괜찮다고 하는 것 같다.

박지 기법을 쓴 병에 혼자 사는 아련한 눈빛을 가진 물고기도 만났다. 철화 물고기들처럼 강렬한 인상이 아닌데도 이상하게 계속 들여다보게 된다. 몸도 많이 평퍼짐하고 비늘도 커다란 것이 또 다른 종인 것 같은데, 덩치에 비해 지느러미 크기는 왜 이리 작은지. 병 아래쪽에 가라앉은 모습은 일단 지금은 헤엄칠 생각이 없어



분청사기 철화 연어문병,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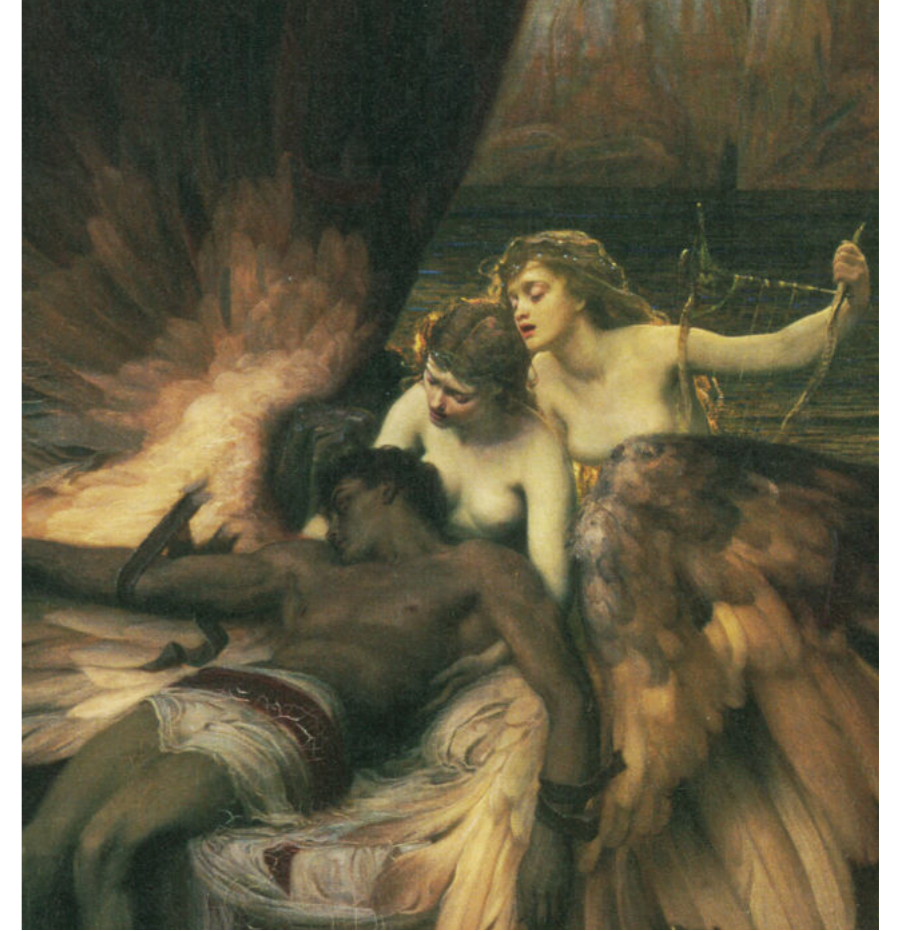
분청사기 박지 연어문병, 국립중앙박물관

보이며, 그렇그런 눈망울은 순정만화 캐릭터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넌 어디서 왔니? 고요히 가라앉아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눈빛은 왜 그래? 운동을 싫어하는 조용한 성격의 감성 충만한 물고기인가?

이 물고기들의 종을 식별할 수 있는 지식이나 도자기들을 척 보고 어느 가마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 있는 안목이 있었으면 좀 더 재미난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아쉽다. 철화로 그린 점박이 무늬 물고기는 쓰가리라는 설과 누치라는 설이 있는데, 계룡산 가마가 있는 공주목에서 많이 잡혔다고 한다. 또 고창, 부안 지역 가마에서는 조기나 송어로 보이는 것들을 새겼고, 다른 지역의 가마에서도 그 지역에서 흔히 보이던 다양한 물고기들을 도자기에 표현했다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누군가가 분석해보니 지역에서 제사상에 잘 오르는 물고기들이라 했다.

이런! 다시 고기로 돌아왔다. 돌고 돌아 원점으로 돌아온 기분이다. 물고기라는 이름이 여전히 유감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난 녀석들을 만나고 나니 기분이 좀 나아졌다. 🐟

서유미 회원



허버트 드레이버, 이카루스를 위한 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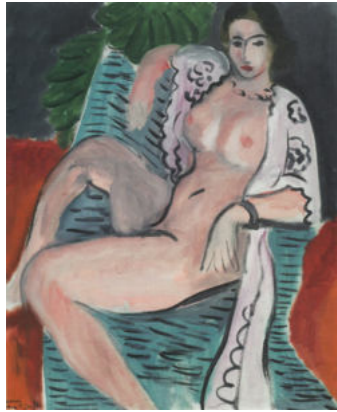
누드  
유감  
有感

누드는 알몸과 다르다. 아주 거칠게 말하면 전자는 예술, 후자는 외설이란 다. 소마미술관 '영국 국립미술관 테이트 명작전-누드'를 향한 때 벗은 몸에 대한 오래된, 그러나 여전히 논란들이 생각났다.

누드하면 연상되는 백자 같은 피부에 수려한 이목구비를 지닌 나신은 우리네 몸을 잠시 빌린 성경이나 신화 속 인물이라고 했다. 영원의 시간을 살아가는 인간인 듯 인간 아닌 존재로 상처나 주름, 체모의 표현은 허락되지 않는다. 별거숭이 임금님 앞의 아이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에 머물지 않고 그림 속 숨겨진 이야기를 읽어내야 한단다.

글쎄, 그림에 대한 해석은 놔두고 민망함을 감추는 헛기침만 하게 되려나, 속된 호기심과 해외 유수의 작품을 실제로 본다는 기대로 두근거렸다.

근현대미술 작가 66명의 작품 122점을 8개의 테마를 따라가며 만난다.



앙리 마티스, 옷을 걸친 누드



윌렘 드 쿠닝, 방문

‘역사적 누드’와 ‘사적인 누드’에서 ‘이카루스를 위한 애도’와 ‘옷을 걸친 누드’를 본다. 깃털 날개옷을 입은 주인공의 주검 앞에서 묘하게 감미로운 슬픔에 젖어 들어가, 한 여성의 은밀한 시공간으로 혹 들어선다. 관객을 환상의 세계에서 꺼내 단박에 일상의 한가운데에 던져놓는다.

물감과 붓으로 그렸다고는 믿어지지 않는 매끄러운 질감의 표현과 화가의 호흡이 느껴지는 설렘설렘해 보이는 붓질도 대조적이다. 기법의 차이와 함께 미술사에서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눈에 들어온다. 고전적·신화적 인물을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재현해오던 미술이 평범한 개인의 나체초상을 얼핏 보면 그리다 만 그림처럼 제멋대로 그려내고 있었다.

근대 들어 미술은 인상주의를 시작으로 3차원의 현실을 2차원의 평면으로 옮겨내는 마술 같은 눈속임에서 벗어난다. 양차 세계대전 속에서도 새로운 미술 사조들은 생겨나고 사라지기를 멈추지 않는다. 미술 속 누드도 이상적인 아름다움에서 자유로워진다.

‘모더니즘 누드’, ‘사실주의와 초현실주의 누드’, ‘표현주의 누드’의 접근에는 매뉴얼이 필수다. 대상을 바라보는 다중적 관점, 인체의 기하학적 단순화, 무의식 세계의 표현, 색채가 주는 정서적 영향 등의 알 듯 말 듯 한 설명들이 현대미술을 안내한다. 서로 다른 목표와 양식으로 제각각인데 ‘난해하고 불친절한’ 것은 똑같다.

10대 시절 처음 본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이 기억난다. 전개도처럼 여러 면으로 나뉘어 펼쳐진 인체와 피부색과 무관한 색의 사용은 생경하기만 했다. 인체를 난도질하듯 그려낸 프란시스 베이컨의 그림도 강렬했다. 비릿한 피 냄새가 배어날 듯 싫어 진저리를 쳤다.



데이비드 봄버그, 진흙 목욕탕



파블로 피카소, 목걸이를 한 여성 누드

미술에서의 몸이란 선, 면, 색의 기본 요소로 환원되는 오브제 중 하나다. 당대 미술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던 그때 심정적으로 두 작가의 창작은 범죄 행위였고 작품은 사건 보고서에 불과했다.

이제는 다르다. 이번 피카소의 누드 유화, 베이컨의 누드 스케치를 그들의 대표작과 비교하며 맛밋하다는 갈잡은 감상을 덧붙인다. 표피적이고 파편적이라도 현대 미술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고 근래 무지하게 센 작품에 시각이 단련된 결과일 것이다.

그렇지만 험겁게 받아들인 미술이론은 머리와 마음에서 이내 엇갈리고 서격거린다. 여전히 온전한 신체의 표현이 아닌 작품 앞에 서면 무언가 속에서 턱 얽힌다.

‘걸어가는 여인’은 마른 가지처럼 가늘고 기다란 인체 상으로 실존의 불안을 나타낸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작품이다.

보이는 대로 말하면 절단된 신체를 단순화한 청동 조각상이다. 비례와 균형의 조형 요소들보다는 어찌 보면 처지가 같지 않나 싶은 우리의 목 없는 불상들만 눈에 밟힌다.

재현을 거부한다는 추상미술 역시 난감하다. 데이비드 봄버그와 윌렘 드 쿠닝의 그림은 형태와 색채의 구성이 주는 느낌과 감정이 중요하단다.

그런데 구체적 상황을 지시하는 제목 ‘진흙 목욕탕’과 ‘방문’에 캔버스에서 숨은 사람 찾기를 시작하게 된다. 화면 가득한 긴 막대기 더미와 뭉개지고 흘러내린 색채 덩어리를 여기가 머리 부분, 저기가 몸통 식으로 인체형상에 끼워 맞추고 이야기도 만들어간다.

쫓쫓, 고전주의의 문법으로 현대미술을 독해하기는 막무가내 식 우격다짐 꼴이다. 그건 제목 탓이다, 구상이 아니라면 무조건 무제라야 한다. 차고 넘치게 많은 무제는 나중 문제다.

‘에로틱 누드’에서는 근대 조각의 아버지, 오귀스트 로댕의 역작에 매료된다. 흰 대리석에 조각된 육체의 경이로운 아름다움과 찰나의 순수한 물입이 순결한 빛으로 눈이 부시다.

단테는 『신곡』에서 금지된 사랑인 불륜의 대가는 파멸뿐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를 모티브로 한 ‘키스’는 도덕적 비난에 귀를 닫는다. 부둥켜안은 몸뚱이의 꿈틀거리는 생명력에 한참을 전율하게 된다.



오귀스트 로댕, 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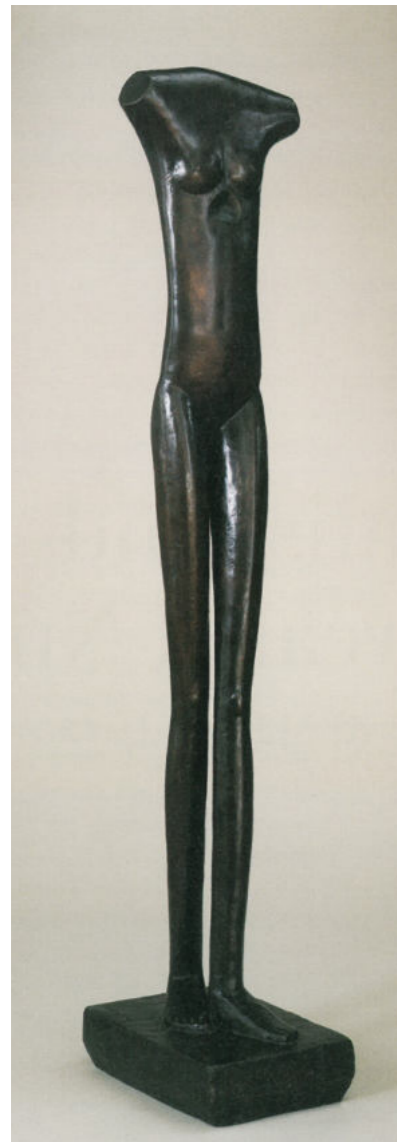


2018  
박물관  
특설강좌

42기 박물관 특설강좌 회원모집

41년 전통의 특설강좌는 우리 역사와 문화예술에 대해 전문강사진에게 배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강좌입니다.

| 회원모집 안내   |  |
|-----------|--|
| 모집인원      | 화요일 : 200명    목요일 : 200명                               |
| 강좌내용      | 역사학, 인류학, 고고학, 미술사, 불교미술, 사상사, 과학사, 전시실 교육 및 고적답사      |
| 수강기간 및 시간 | 2018년 3월~12월 (매주 1회, 13:00 ~ 17:00)                    |
| 교육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소강당  |
| 참고사항      | 박물관 특설강좌 수료 후 계속적으로 박물관 연구강좌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신청방법      |  |
| 신청기간      | 2018년 1월 10일(수)부터 선착순 마감                               |
| 참가비       | 570,000원(1년 과정)  |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a href="http://www.fnmk.org">www.fnmk.org</a> |
|           | 현장접수(수강신청서, 사진 1매) :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101호                  |



알베르토 자코메티, 걸어가는 여인

‘몸의 정치학’은 페미니즘, 인종차별 등의 사회적 이슈를 회화와 사진으로 보여준다. 여성 모델의 전형적인 포즈를 그대로 따라한 흑인 남성의 누드화 ‘나체흑인금지’가 시선을 끈다. 그림의 내용과 배치되는 제목이 누드화의 관습에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듯하다.

여성이 주 대상인 누드는 서구남성 중심의 세계관과 은폐된 폭력성의 방증이 아닌지를 묻고 있는 것 같다. 그림 속 흑인 남성이 파격적으로 느껴진 점은 우리의 미술 속 누드가 서구의 모방과 답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한다. 벗은 몸은 때론 벌거벗겨진 몸이었고 회화의 소재를 넘어 시대의 모순과 오류를 증언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깨닫는다.

‘연약한 몸’에서는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에 시선이 멈춘다. 산모와 아이를 분만 후 1시간, 1일, 1주일에 촬영한 사진 연작이다.

여성에게 주어진 고유의 역할, 출산은 이 땅 위의 생명을 이어가는 성스러운 임무이자 극한의 고통을 수반하기에 가혹한 형벌이라 말해진다. 사진 속 산모의 생각도 그럴까.

그녀들은 성모상처럼 신비롭지 않고 새 생명의 탄생에 환희도 두려움도 없는 표정이다. 여성에서 어머니로의 통과의례를 아무런 말없이 담담하게 보여준다.

불현듯 시공간을 초월하여 경주에서 발견된 후기신라 토우를 떠올린다. 분만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신음소리를 삼킨 누군가가 흠뻑이를 빗었음에 틀림없다.

‘출산하는 여자’ 토우의 벌어진 입과 뒤틀린 허리가 수백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탄생의 순간을 생생하게 중계한다. 왜 옛사람들은 토기에 아이를 낳는 모습의 장식을 했을까. 작은 토우는 죽은 자의 공간에서 죽음과 탄생을 잇는 영매가 되었으려나. 인류의 출현과 궤를 같이 했을 장대한 역사의 미술에서 날것 그대로의 몸을 되짚어보게 된다.

아하, 왜 우리에게 누드 명작이 없다고 생각했지. 미술관 다음은 토우가 전시된 우리 박물관이다. 🐼

문정원 회원



## 제14대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신성수 선임



국립중앙박물관회는 국립중앙박물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총회에서 제14대 회장으로 신성수 고려산업 회장을 선임하였다.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여러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막중한 책무를 맡겨주셔서 깊게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낍니다. 그동안 박물관과 박물관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김정태 회장님, 홍석조 부회장님과 배기동 관장님, 여러 이사님과 평의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유물기증, 심포지움, 학술후원 등 여러 가지 후원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전임회장께서 이루어 놓은 사업을 이어받아 기금을 더욱 확충하고, 2014년에 나전경함을 기증했던 것처럼 또 좋은 유물을 기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박물관회의 실질적인 내실을 다지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임 신성수 회장은 선임 수락인사말을 통해 기금 확충을 통한 문화재 기증사업과 박물관 후원 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말하였다. 신성수 회장은 2008년부터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2011년부터 현재까지 부회장, 2012년부터 컬렉션 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활동해왔으며 특히, 2014년에는 고려시대 중요문화재인 나전경함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신성수 회장은 2017년 11월 24일로 임기를 마치는 제13대 김정태 회장의 뒤를 이어 3년 동안의 임기를 수행하며, 부회장으로는 윤재륜 성보문화재단 이사장과 박은관 시몬느 대표이사 회장을 선임하였다.



신라실, 토우

## 춤

어깨춤 덩실덩실  
얼쭉~ 얼쭉~  
흥겨움 절로 나니  
들놀음 나가볼까. 🐘

정향숙 회원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鎭, 鄭鎭肅, 金榮秀, 俞相玉, 柳昌宗, 金正泰 회장을 거쳐 2017년 11월 申聖秀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申聖秀  
 副 會 長 | 尹在倫 朴殷寬  
 理 事 | 郭東錫 金錫洙 金信韓 南秀淨 朴禎原  
 禹燦奎 尹碩敏 李玉卿 許榕秀 洪錫肇  
 洪政旭 裴基同  
 監 事 | 金教台 李教祥  
 事 務 局 長 | 辛炳讚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 원, 청룡 오십억 원, 백호 삼십억 원, 주작 십억 원, 현무 오억 원, 천마 일억 원, 금관 오천만 원, 은관 삼천만 원, 청자 일천만 원, 백자 오백만 원 이상으로 한다.

|   |  |   |  |  |  |
|---|--|---|--|--|--|
| <b>주작회원</b><br>尹光子  | 회원   | 金承謙<br>金信韓<br>金芝延<br>全裁範<br>南秀淨<br>都炯泰<br>朴炳燁<br>朴容允<br>俞相玉<br>尹在倫<br>李圭植<br>李明姬<br>李旼旻<br>鄭明勳<br>鄭在鳳<br>趙顯相<br>許允秀<br>許允烘<br>洪政旭 | 서릉지주 <sup>(주)</sup> 대표이사 의장<br>대성 사장<br><sup>(주)</sup> 컨셉 대표<br>금강공업 <sup>(주)</sup> 사장<br><sup>(주)</sup> 썬앳푸드 사장<br>갤러리현대 대표이사<br>팬택&큐리텔<br>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br>코리아나화장품 회장<br>정보문화재단 이사장<br>경신금속 <sup>(주)</sup> 대표<br>일우재단 이사장<br>MashupAngels 대표<br>전 서울시향 예술감독<br><sup>(주)</sup> 한섬<br>효성 사장/전략본부장<br><sup>(주)</sup> ALTO· <sup>(주)</sup> ALTEK 부사장<br>GS건설 전무<br><sup>(주)</sup> 헤럴드 회장 | 金寧明<br>金英姬<br>金載勳<br>金鍾漢<br>柳芳熙<br>柳智勳<br>朴英柱<br>朴知原<br>朴禎原<br>裴東眩<br>徐載亮<br>成來恩<br>成弼鎬<br>宋秉峻<br>宋 哲<br>梁洪碩<br>禹燦奎<br>柳昌宗<br>尹賢慶<br>李教祥<br>李玉卿<br>李周成<br>林鍾勳<br>張仁宇 | <sup>(주)</sup> 예을 이사장<br>회원<br>영풍계약 부사장<br><sup>(주)</sup> 중합전기 대표<br><sup>(주)</sup> 풍산주택 회장<br><sup>(주)</sup> 한담 사장<br><sup>(주)</sup> 다이소아성산업 부사장<br>두산중공업 <sup>(주)</sup> 대표이사 부회장<br>두산 네오플렉스 부회장<br>창성그룹 대표이사 사장<br>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br><sup>(주)</sup> 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 사장<br>광성기업 <sup>(주)</sup> 대표<br><sup>(주)</sup> 게임빌· <sup>(주)</sup> 컴투스 대표이사<br>성문출판사 대표<br>대신증권 <sup>(주)</sup> 사장<br>학교재 대표<br>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br>동화약품 상무<br>서울가든호텔 부사장<br>서울옥션 부회장<br>세아제강 전무이사<br>한미IT <sup>(주)</sup> 대표이사<br>선인자동차·고진모터스 대표이사 |
| <b>현무회원</b><br>金正泰  | 하나금융그룹   |   |  |  |  |
| <b>천마회원</b><br>朴殷寬<br>孫昌根<br>申聖秀<br>申憲澈<br>尹碩敏<br>尹章燮<br>鄭溶鎭<br>千信一<br>許榕秀<br>洪錫肇 | <sup>(주)</sup> 시몬느 회장<br>소장가<br>고려산업 <sup>(주)</sup> 회장<br>SK에너지<br>SBS미디어홀딩스 부회장<br>전 정보문화재단 이사장<br>신세계그룹 부회장<br>GS EPS 대표이사<br><sup>(주)</sup> BGF리테일 회장 |   |  |  |  |
| <b>금관회원</b><br>姜德壽<br>庚 園<br>權俊一,具在善<br>曉 暲<br>金南延                                | <sup>(주)</sup> STX<br>광제사 주지<br>Actium Group 부회장<br>회원<br><sup>(주)</sup> 동훈 대표이사   | <b>은관회원</b><br>姜院基<br>金教台<br>金錫洙  | 오리온 대표<br>삼정회계법인 대표<br>동서식품 <sup>(주)</sup> 회장  |  |  |

崔杜準  
崔正勳  
최철원  
韓惠舟

<sup>(주)</sup>동남유화 부회장  
대보건설<sup>(주)</sup> 부사장  
M&M<sup>(주)</sup> 사장  
하피스트

### 청자회원

姜承模  
高基瑛  
具東輝  
具本權  
具本商  
具本赫  
金建昊  
金京姬  
金寧慈  
金大煥  
金東官  
金東準  
金斗植  
金性南  
金性完  
金世淵  
金永珉  
金榮秀  
金英惠  
金裕錫  
金侖壽  
金恩惠  
金益煥  
金仁順  
金載烈  
金正宙  
金宗學  
金兌炫  
金澤辰  
金賢銓  
南兌勳  
柳重熙  
朴環鎭  
朴仙卿  
朴善正  
朴宣注  
朴世昌  
朴載相  
朴載蓮  
朴廷彬

KP그룹 부회장  
<sup>(주)</sup>금비 부회장  
<sup>(주)</sup>LS 이사  
LS-Nikko동제련<sup>(주)</sup> 부장  
LIG넥스원<sup>(주)</sup> 부회장  
LS-Nikko동제련<sup>(주)</sup> 부사장  
삼양사 팀장  
<sup>(주)</sup>피어나조경 대표이사  
<sup>(주)</sup>예을 명예이사장  
<sup>(주)</sup>슈페리어·슈페리어홀딩스<sup>(주)</sup> 사장  
한화 큐셀 전무  
다우데이터 이사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스무디킹 Global CEO  
동일고무벨트<sup>(주)</sup> 부회장  
김&장 법률사무소  
2014아시아게임 조직위원장  
제일화재 이사장  
<sup>(주)</sup>행남 대표이사  
지리산 문화관 관장  
서울도시가스 이사  
한세실업<sup>(주)</sup> 대표  
한국고미술자기 연구소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sup>(주)</sup>NXC 대표이사  
서양화가  
성신양회<sup>(주)</sup> 사장  
<sup>(주)</sup>엔씨소프트 대표  
히든베이호텔 사장  
국제약품 대표이사 사장  
<sup>(주)</sup>퓨처플레이 대표이사  
진주협 대표이사 부사장  
웅인대학교 부총장  
대선제분<sup>(주)</sup> 전무  
영은미술관 관장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장

성곡미술관 이사  
<sup>(주)</sup>신원 부회장

朴正遠  
朴俊泳  
朴海春  
方正梧  
裴允植  
徐東姪  
薛允碩  
孫元洛  
辛炳讚  
申硯均  
辛永茂  
愼昌宰  
沈宗玄  
楊仁集  
梁汰會  
吳勝敏  
吳治勳  
柳東鉉  
俞承熹  
柳英芝  
尹 寬  
尹普鉉  
尹勝鉉  
李甲宰  
李圭鎬  
李起雄  
李萬圭  
李美淑  
李常宰  
李善眞  
李承勇  
李英純  
李鈴子  
李容濬  
李宇成  
李宇鉉  
李雲卿  
李胤基  
李仁洙  
李宰旭  
李廷龍  
李柱翰  
李濬宇  
李芝衡  
李哲雨  
李學俊

재미교포  
본음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TV조선 상무  
<sup>(주)</sup>한국체인모터 대표이사  
회원  
대한광통신 사장  
<sup>(주)</sup>경동홀딩스 상무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아름지기 이사장  
법무법인 세종 대표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한국가구박물관 부관장  
<sup>(주)</sup>진로 대표이사 사장  
<sup>(주)</sup>비상교육 대표이사  
동일산업<sup>(주)</sup> 대표이사 사장  
대한제강<sup>(주)</sup> 대표이사 사장  
인성산업<sup>(주)</sup> 전무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관장  
유금와당박물관 기획실장  
BlueRun Ventures 대표  
호림박물관 이사  
<sup>(주)</sup>뉴라이트전자 대표이사  
삼일회계법인 전무  
코오롱 인더스트리 상무  
열화당 대표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삼표산업  
<sup>(주)</sup>삼화택시 대표이사  
목금토갤러리 관장  
<sup>(주)</sup>에이티넵파트너스 대표이사  
한국미술협회 회원

<sup>(주)</sup>경농 부사장  
<sup>(주)</sup>이테크건설 부사장  
OCI 사장  
남양유업 전문위원  
그랜드힐튼호텔 사장  
수원대학교 이사장  
전남일보 사장/발행인  
가나아트갤러리 대표  
<sup>(주)</sup>삼익유니버스 이사  
흥아해운 전무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사  
롯데쇼핑 총괄사장  
서울옥션 고문

李海珍  
張善霞  
張升準  
洋賢財團  
田永采  
田潤洙  
丁恩美  
鄭義宣  
鄭在昊  
鄭志伊  
趙炳舜  
曹榮美  
曹榮峻  
曹在顯  
趙希卿  
陣在旭  
千碩圭  
崔世勳  
崔雄善  
崔仁善  
崔再源  
崔惠玉  
한국도로공사  
韓榮宰  
咸泳俊  
許正錫  
許辰秀  
玄明官  
玄智皓  
胡鍾一  
胡昌成  
洪範碩  
洪碩杓  
洪誠杓  
洪元福,金根鎬  
洪正國  
洪正道  
洪進基  
洪振碩  
黃仁奎  
Joseph Bae  
Mark Tetto

NAVER 이사회 의장  
<sup>(주)</sup>교원 부문장/부장  
매일경제 사장

<sup>(주)</sup>한길봉사회 이사장  
중국미술연구소 대표  
블룸앤코 대표  
현대자동차 부회장  
대호물산<sup>(주)</sup> 대표이사  
현대유엔아이 전무  
성암고서박물관장  
경동소재 대표이사  
우양산업개발<sup>(주)</sup> 대표이사

<sup>(주)</sup>가온소사이터티 대표  
하나유비에스 대표  
천일식품<sup>(주)</sup> 대표  
<sup>(주)</sup>카카오 CFO  
<sup>(주)</sup>인팩 대표이사  
회원  
SK<sup>(주)</sup> 부회장  
회원·자원봉사

노루홀딩스 회장  
<sup>(주)</sup>오투기 회장  
일진홀딩스<sup>(주)</sup> 대표이사  
SPC<sup>(주)</sup> 부사장

<sup>(주)</sup>화승R&A 부회장  
호성흥업 회장  
<sup>(주)</sup>더벤처스 대표이사  
남양유업<sup>(주)</sup> 부장  
고려제강 상무  
고려상사<sup>(주)</sup> 부회장  
회원  
<sup>(주)</sup>BGF리테일 전무  
중앙미디어네트웍 대표이사 사장  
마리오아울렛 이사  
남양유업<sup>(주)</sup> 상무  
충남도시가스 대표이사  
KKR Asia Limited 대표  
TCK Investments 상무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